누나의 조용하고 모범 적인 인생이 그리스도 인의 근본적인 인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

31살인 에두아르도 로스따오 (Eduardo Lostao)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본인의 누나에 대해 쓴 글을 소개합니다. 그녀(Maria José)는 오프스 데이 Numerary 회원이였으며지난 4월 3일 사망했습니다.

우리 집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육이 매 우 중요했습니다. 저는 오프스 데이 회원이 아닙니다. 그러나 부모님은 (어머님은 오프스 데이 회원)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지요. 따라서 학교도 천주교 학교를 다녔습니다. 어리석은 시기가 와서 바보 같은 짓 도 했지만 그분들의 본보기는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. 진정한 가족이 무 엇인지 알고 있었으니 길을 잃더라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지 알았 지요. 부모님과 누나의 확실한 본보 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세상에 대한 많은 이론을 만들 수 있 었지만 진리의 시간이 다가오면 부모 님과 누나의 관계야 말로 인생의 신 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.

그이들의 관계는 그 무엇도 극복했습니다. 하반신 불수자가 감수해야 하

는 고통, 굴욕과 고생은 셀 수가 없습니다. 생명의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하느님께 희망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현실과 부닥칩니다. 저의 누나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아직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됩니다. 왜냐하면 믿음과 은총이 있더라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디지니랜드가 아니었습니다: 지겨울 정도로 통증은 많았습니다.

환자 옆에 살다 보면 의식을 못합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어떤 날은 휠체어가 고장 나거나, 그 휠체어를 밀어야 되거나, 밀다가 발가락을 다치거나, 아니면 승강기에 못 타거나 등;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 서는 잘 모릅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차차 그 환자의 다정함과 끌어당기는 힘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그 고통을 인간

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성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.

물론 환자와 생활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바로 간호하는 사람입니다. 환자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. 모든 일들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누나가 쓴 글 중에 막내 동생의 '확실 한 천직'에 대해 읽으면서 많이 웃었 습니다.

사제로서 하느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 겠다는 결심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의 누나의 '활약'이 가장 컸다고 믿습니다.

사제의 길을 택하려고 할 때 누나에 게만 말을 했었습니다. 누나가 기도 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직 접적으로는 한번도 말을 안 했었지만 그 당시와 누나가 사망한 후 지금도 하느님과 저의 관계에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. 최근 몇 개월동안 받 은 많은 도움으로 사제의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.

매우 긴 길

저는 13살부터 조금 식 신앙생활에서 멀어 저 갔습니다. 그러나 다행이 빰 쁠로나 대학을 진학해서 철학을 전공 을 했습니다. 그곳에서 진정한 진리 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 다. 졸업 후 독일에 가 오프스 데이 Numerary 회원과 친해졌는데 그 친 구와 매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참 다행이었지요.

2005년 5월부터 다시 영적 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사제의 길이 더욱 확실하게 보였습니다. 누나에게 말했더니너무 기뻐했습니다. 저에게는 아무말도 안 했지만 항상 기도 속에서 빨리 결혼도 하고 인생정리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언젠가 오프

스 데이 회원이 되라고 기도도 했겠 지요.

저는 누나를 항상 보배로 보았습니 다. 누나는 저에게 신비 그 자체였지 요. 선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처럼......누나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을 했었습니다: 죄 없는 사람이 왜 십 자가에 못 박혀있을까? 저는 저항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누나를 바 라보면서 나에게 답을 했습니다: 언 젠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평온 을 느끼고 참 인생은 이곳(고통의 신 비)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누나는 아 무 말도 하지 안았습니다. 가끔 같이 묵주기도를 했었지만 자주 같이 박물 관을 가거나 어디 나가 커피 한잔을 마시거나 했었지요.

마리아호세 누나의 조용한 본보기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면을 보게 했 습니다. 인생의 참된 뜻. 저는 철학과 이론을 만드는데 애썼습니다. 지금 저의 나이에는 이론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지요. 또한 악(惡)을 만날 때 마다 느끼는 유혹도 알고 있습니다: 모든 것이 거짓이고 하느님은 존재하 지 않다거나 같은 생각들.....

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십자가의 '미친 행위'를 믿기 어려워 합니다. 따라서 신앙이 없는 사람에 게는 십자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.

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인생의 현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든 일의 뜻을 발견합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nunayi-joyonghago-mobeomjeogin-insaengi-geuriseudoinyi-geunbonjeogin-insaengeul-bol-su-issge-haessseubnida/(2025-11-20)